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방카슈랑스, 규제 형평성이 문제
- 이슈분석** 코로나19 이후 의료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 금융경영브리프** 언택트 시대, 은행권 금융교육의 트렌드 변화
美 반도체 지원책과 글로벌 기업 투자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높아진 상하단에서 숨고르기
외 환: 완연한 위험선호 속 1,100원 하회
부동산: 전세 및 매매가격 동반 상승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곽영훈(yhkwak)
연구원 최희재(heejaechoi)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안성학(shahn)
연구원 최희재(heejaechoi)
연구원 신석영(seokyoung.shin)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김수정(sjkim1771)
외 환 | 연구원 윤지선(jisun.yun)
부동산 | 연구위원 황규완(gwhwang)

금융지표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방카슈랑스, 규제 형평성이 문제
- 04 **이슈분석** 코로나19 이후 의료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 08 **금융경영브리프** 언택트 시대, 은행권 금융교육의 트렌드 변화
美 반도체 지원책과 글로벌 기업 투자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높아진 상하단에서 숨고르기
외 환: 완전한 위험선호 속 1,100원 하회
부동산: 전세 및 매매가격 동반 상승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방카슈랑스, 규제 형평성이 문제*

정 승 희 연구위원(smiey77@hanafn.com)

방카슈랑스는 다른 어떤 보험 판매채널보다도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채널로 이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보수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시장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일부만 상황에 맞게 적용되다보니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방카슈랑스 25%룰의 경우 농협,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한 예외 적용에 이어 최근 2개의 계열 보험사를 보유한 금융지주 산하 은행에 대해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향후 온라인 방카슈랑스와 유사한 디지털 보험플랫폼의 활성화에 앞서 근본적인 방카슈랑스 규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03년 국내 보험시장에 처음으로 도입된 방카슈랑스 채널은 현재 설계사, GA 채널 등과 더불어 주요 보험 판매채널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판매가 용이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가 전체 판매 실적의 절반을 훨씬 넘는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방카슈랑스는 연금보험의 주력 판매 채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대면영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은행의 디지털 채널을 통한 방카슈랑스 영업을 추진되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카슈랑스 채널의 성공적인 안착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각종 규제는 제도 시행 이래 17년 동안 큰 틀의 변화 없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다양한 측면에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이 지속

국내 방카슈랑스 규제는 상당히 복잡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먼저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제한적이다. 소비자와 보험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결과이다. 2003년 1단계에서는 연금 및 저축성보험과 주택화재보험, 이후 2005년 4월 2단계에서는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2006년 10월 3단계에서는 질병과 상해보험으로 판매 가능한 상품을 확대하였다. 이후 보험업계의 반발로 전체 상품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었던 4단계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현재 생보사의 종신보험,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등 주요 상품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방카슈랑스 판매 인원은 지점 당 2인으로

국내 방카슈랑스 채널은 판매상품, 판매인원, 판매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가 적용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제한되어 있다. 보험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에게만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동시에 같은 상품을 영업하는 보험 설계사들의 수익 축소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판매 총량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면 영업을 허용하는 등 아웃바운드 외부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채널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는 여전히 유지

당초 규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현재 방카슈랑스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설계사 등 다른 보험판매 채널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방카슈랑스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로 설계사(0.13%), GA(0.36%)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우려했던 설계사의 대량 실직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되었던 2003년 대비 설계사 수는 70% 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나고 명실상부 주요 판매채널로서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우려한 각종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방카슈랑스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이러한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일부만 상황에 맞게 적용되다보니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방카슈랑스 25%률의 적용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 가장 큰 문제는 차별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

농협 생·손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예외적인 방카슈랑스 규제가 적용

지난 2012년 농협생명 및 농협손보가 출범하면서 방카슈랑스 25%률의 차별적 규제 적용에 대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농협 상호금융 점포에 대해서는 25%률과 상관없이 판매액의 100%를 농협 생·손보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가 적용되었다. 원래는 5년 유예 기간 후 25%률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은행 지점 접근성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유예 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농협 상호금융 점포는 25%률의 적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후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다시금 방카슈랑스 25%률은 예외가 적용되었다. 농협 점포와 마찬가지로 2조원 미만의 금융기관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농협과 달리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은행도 아닐뿐더러 케이뱅크의 경우 모 생보사가

지분 투자한 은행으로 25%룰의 도입 취지에 배치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사에 대해 방카슈랑스 25% 룰 적용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의 법령해석이 내려졌다. 최대주주가 같은 2개 보험사는 합산총액 33%만 준수하면 된다. 최근 생보사를 추가적으로 인수하면서 2개의 생보사를 보유한 금융지주들 입장에서는 방카슈랑스에 적합한 계열사에 판매 물량을 몰아주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규제 자체의 합리성을 논하기 이전에 현재와 같이 시장 환경이 변할 때마다 선별적으로 예외 사항들이 추가된다면 규제 테두리 안에서 영업할 수밖에 없는 일부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준비가 필요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보험시장은 M&A 등을 통해 시장이 재편되기도 하고 금융 산업 안팎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새로운 player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끊임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방카슈랑스 규제도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예외 적용을 추가하기보다는 규제 자체의 재정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소위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방카슈랑스와 이들 디지털 플랫폼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비전속판매채널이다. 특히 디지털화로 은행 지점 수가 축소되면 오프라인 방카슈랑스보다는 향후 온라인 방카슈랑스, 소위 모바일슈랑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디지털 채널 특성상 상품경쟁력에 대한 고객 의견이나 선호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계열사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그야말로 빅테크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보험판매 플랫폼의 또 다른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25%룰을 포함한 각종 규제가 방카슈랑스 채널에만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방카슈랑스 채널의 이해관계자는 다양하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면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방카슈랑스 시장을 둘러싼 각종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 적용의 득과 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비할 시점이다. 

최근에는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사에 대해 방카슈랑스 25%룰 적용이 예외

빅테크 보험판매 플랫폼과도 규제 적용의 형평성 이슈 발생 우려

코로나19 이후 의료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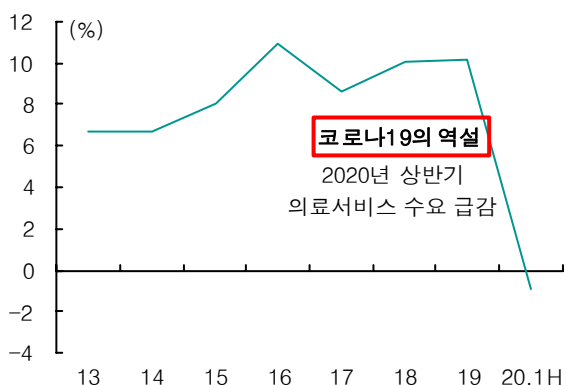
김 유 진 연구위원(jazzgene@hanafn.com)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병의원 방문을 기피하는 환자가 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감소하는 코로나19의 역설이 발생했다. 대신 디지털(5G, AI 등) 기술 기반의 신개념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서비스의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헬스케어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의료기관이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반면 기존 서비스 체계를 고수하는 의료기관의 입지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초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코로나19의 역설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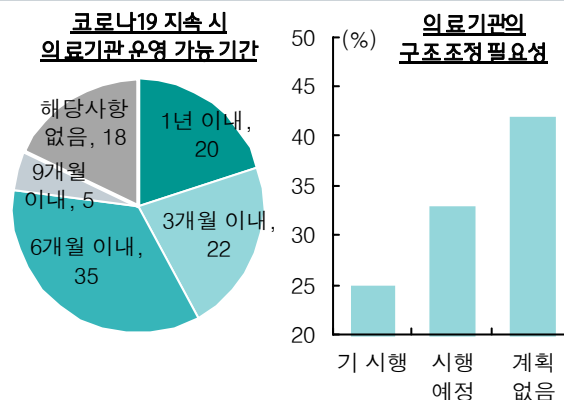
- 국내 의료 서비스 산업은 인구구조 변화(노인인구 급증), 생활수준 향상(소득 증가) 등으로 관련 지출이 늘면서 안정 성장 기조를 지속
- 그러나 2020년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병의원 방문을 기피하는 환자가 늘고, 예방수칙 준수 등으로 발병이 줄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감소하는 코로나19의 역설이 발생
 - '20년 4월 누계 의료기관 전체 수진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고, 같은 기간 입내원일수 및 진료비는 각각 13.2%, 0.9% 감소
-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실적이 악화되었는데, 특히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충격이 큰 것으로 파악
 - 코로나19 이후 대한의사협회('20.5)가 개원의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운영 가능 시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년 이내 82%, 3개월 이내 22%, 6개월 이내 35%로 응답

■ 국내 의료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추이



주 : 건강보험 진료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기준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코로나19 이후 국내 의료기관의 체감 리스크



자료 : 대한의사협회(20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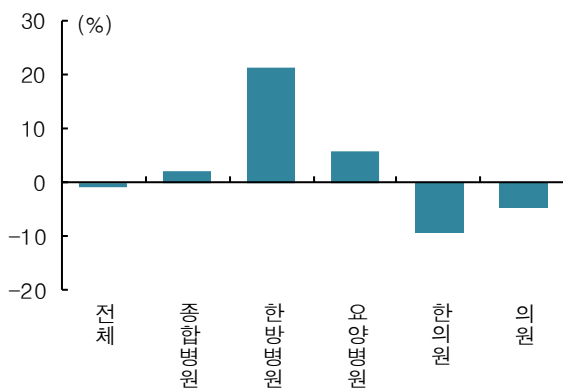
■ 병의원 규모별 수익은 차별화되었으나, 이익은 전 의료기관에 걸쳐 모두 감소

- 팬데믹 이후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수익 변동에 차이가 있는데,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반면 의원급은 위축
 - 4월 누계 진료비 실적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 21.3%, 5.9% 증가한 반면, 의원급은 4.7% 감소
- 다만, 비용을 고려한 이익 수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으로 병원(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이 부진
 - 코로나19에 따른 병원의 추가비용은 대진 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 장비구매 비용, 의료인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 휴가비용, 마스크 구매 비용 등으로 조사
- 또한 국내 건강보험 체계 상 초진환자의 단위당 경영이익이 높는데, 최근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종합병원의 초진환자수가 줄면서 이익이 감소

■ 의원급에서는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의 타격이 큰 반면 정신과·성형외과는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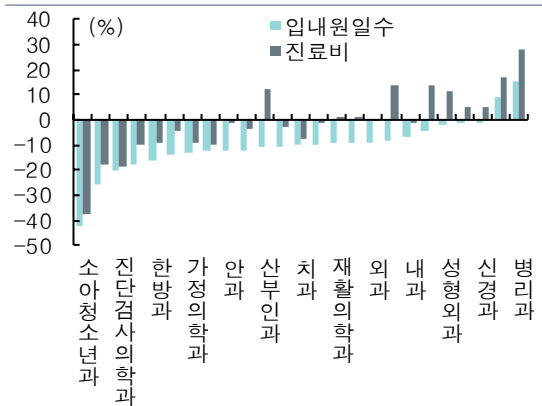
- 코로나 블루 특수로 신경정신과 수요가 급증했고, 마스크 착용과 비대면 기반의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팬데믹 이후 미래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 미용 관련(피부과·성형외과) 의료 서비스 수요가 견조
- 반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개인위생 강화, 개학연기 및 재택근무 등으로 전염성 호흡기 질환 발생이 급감하면서 수요가 크게 위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년 상반기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의 진료 명세서 건수가 1,871만 건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수준
-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팬데믹 이전에도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로 부진을 지속해 왔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

■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별 실적 변동 현황



주 : 2020년 4월 누계 진료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코로나19 전후 국내 의원급 진료 실적 현황



주 : 2020년 4월 누계 진료 실적 기준(YOY)
 자료 : 의학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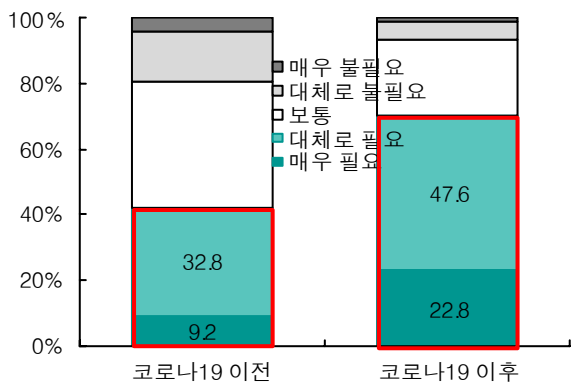
■ 한편,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신개념 의료 서비스가 등장

- 최근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 수요가 감소한 것과 별개로 전 세계 의료시스템은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적극 활용
-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하에 감염자 동선 추적 앱 및 이동형 선별진료소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가 도입되었고, 전화를 이용한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
- 특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과 달리 원격의료가 불법인 한국에서 최근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가 허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
- 이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서비스 산업에서도 비대면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방증

■ 코로나19를 계기로 언택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니즈 확대 및 정책 지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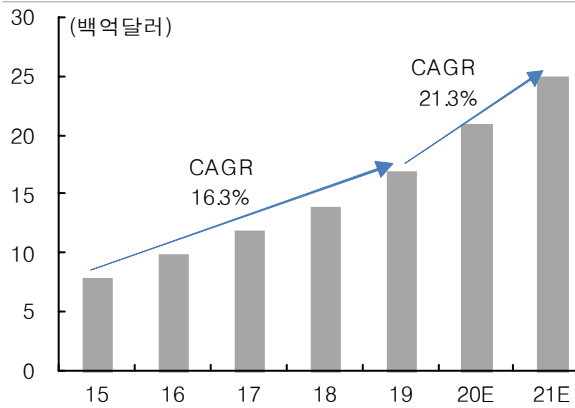
-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가치 및 필요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어 향후 디지털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
- 코로나 블루 등으로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작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장점이 더욱 부각
 - 의료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대면의료 1회당 평균 비용이 115달러인데, 원격의료 1회당 평균비용은 38달러 수준으로 대면의료의 1/3 수준
- 이에 건강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은 타 산업 대비 보수적인 관점에서 다뤄지고 변화가 더뎠으나, 금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관련 투자 및 정책 지원이 확대
 - 의료 관련 주요 규제는 의료 데이터의 활용 범위, 유전자 분석 및 원격의료 허용 등

■ 코로나19 전후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 전망




자료 : Stati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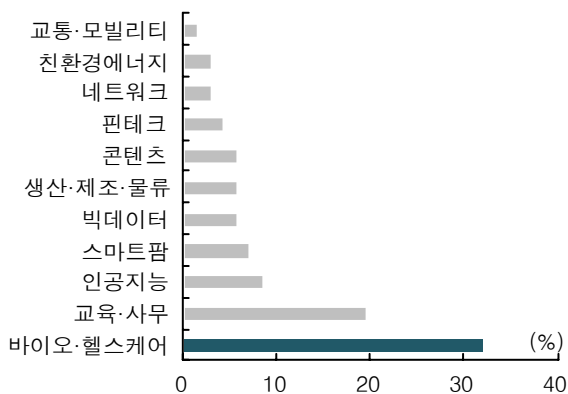
■ 국내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중

- 한국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일상적인 건강관리 목적 하에 편의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주목
- 특히 국내 의료시장은 인구수 대비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간 서비스 품질 차이가 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은 편
 - 한국의 임상 의사수는 인구 천 명당 2.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3명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며, 전체 의사의 80%가 대도시 및 수도권에 편중
- 이에 따라 정부는 헬스케어 부문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정책 변화로 ICT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적
 - 규제혁신 5법 발의('18.3), ICT 규제 샌드박스 발효('19.1),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20.1), 원격 진료 한시적 허용('20.2), 디지털 뉴딜 정책('20.7) 등

■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고성장 하에 의료기관별 차별화 예상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의료기관별 영향은 차별화될 전망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병원 구축 등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는 의료기관은 의료 서비스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면서 안정 성장을 지속할 전망
- 디지털 기반의 의료 시스템 활용 시 환자 편의가 증대되고 의료진의 피로와 감염위험이 감소하는 등 효율성이 증대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
- 반면, 디지털 기반의 수요자 중심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 소극적인 의료기관 즉 기존 공급자 중심의 대면 서비스 체계를 고수하는 병원의 경우 수요 감소 우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유망산업 평가



주 :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응답 비중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 디지털 뉴딜의 4대 분야 중 12개 추진 계획

분야	주요 내용
D.N.A. 생태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구축, 개발, 활용 전 산업 5G, AI 융합 확산 5G, 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 체계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SOC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단 공간의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자료 : 기획재정부

언택트 시대, 은행권 금융교육의 트렌드 변화

최희재 연구원(heejae.choi@hanafn.com)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금융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는 Z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에듀테크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금융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는 등 젊은 고객층의 고객 기반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Z세대 고객을 포함한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해 에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고객의 금융이해도를 제고하고 금융상품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금융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는 Z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
 - 미국 Z세대(18-21세) 소비자의 62%는 금융 및 경제 지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76%는 재무적 지식 향상에 대한 학습 의향이 있다고 밝힘
 - 영국 학부모의 98%는 자녀에게 돈관리 및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¹⁾
- 미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 Zelle은 Z세대의 금융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에듀테크 기업 EVERFI와 협력하여 美 고교에 무료 디지털 교육 과정을 제공²⁾
 - Zelle은 '21년까지 미국 전역 650개 학교에 해당 과정을 제공하고, 은행과 신용조합도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 후원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

■ 금융소외계층 위주 금융교육에서 젊은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금융교육으로 트렌드 전환

- 과거 금융사들은 고령층 중심의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교육에 집중하였지만, 최근에는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해 Z세대에 이어 알파세대('11년생~)의 고객화에 집중
 - Barclays는 '13년부터 시니어고객의 금융교육 지원을 위해 모바일 계좌, 화상 통화 등 디지털금융을 지원하는 '디지털 이글(Digital Eagles)' 직원 7,000여명을 지점에 배치
 - 이후 Barclays는 'LifeSkills'를 통해 젊은 세대를 위한 금융교육까지 확대
- 젊은 세대의 디지털 금융교육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에듀테크 회사들도 Z세대를 포함한 젊은 층의 금융교육 지원에 대한 노력을 확대
 - EVERFI는 HSBC, TD Bank, Mastercard 등 850개의 금융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


[1] "State of Banking for Families", Netguru Report, 2019

[2] "Zelle Partners with EVERFI to Launch Free Digital Financial Literacy Course for High Schools", PR Newswire, 2020.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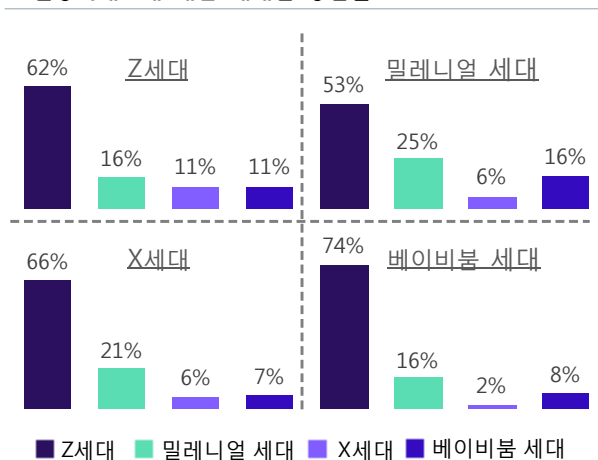
■ 글로벌 은행들은 에듀테크 플랫폼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금융 콘텐츠 공동 개발을 추진

- HSBC는 코로나 대응으로 EVERFI와 신용관리, 학자금, 주택 마련, 대출·결제 관련 미래 설계 콘텐츠 제공 및 재테크 제언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사 상품을 추천
 - HSBC Financial Wellness Center을 통해 이벤트별 현황에 대한 퀴즈를 통해 금융 현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자사 상품으로 자연스럽게 유도
- BoA는 '13년부터 인터넷 강의 플랫폼 Khan Academy와 협업하여 소비자의 금융 이해 및 상품 선택을 지원하는 온라인 교육 채널(Better Money Habits)을 설립
 - 생애주기별 질문을 통해 금융 현황 및 경제적 목표를 설명해주고 자사 관련 상품 링크, 관련 업무 담당자 정보, 상담 예약 등 실질적인 은행 업무를 유도
 - BoA 웹사이트 내 채널을 통해 신용, 부채, 저축, 자동차 구매 등 고객 목표의 적합한 재무 노하우에 대한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은행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

■ 국내 금융회사들도 Z세대를 포함한 고객 기반 확보를 위해 금융교육 지원을 확대할 필요

- 국내 성인(18~79세) 금융이해력은 OECD 평균 대비 낮으며, 20대의 경우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가 취약함에 따라 국내에도 금융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다고 판단
 - 국내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로 OECD 평균('15년 64.9점)보다 낮으며, 그 중 30대가 가장 높고 60~70세 고령층을 제외하면 20대가 그 다음으로 낮은 편
- 국내 금융회사들도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해 에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고객의 금융이해도를 제고하고 금융상품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추진할 필요
 -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카카오 '야나두'의 동기부여 플랫폼 '유캔두' 등 교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에듀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예상 

■ 금융이해도에 대한 세대별 응답률



주 : 각 세대가 생각하는 금융이해도가 가장 낮은 세대에 대한 응답률
자료 : Zelle

■ 국내 연령대별·성별 금융이해력 수준

	연령대별					평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국내	OECD
금융이해력	61.8	64.9	64.1	63.1	59.6	62.2	64.9
(금융지식)	69.0	68.2	68.2	66.5	61.6	65.7	69.1
(금융행위)	58.4	64.8	62.2	60.6	56.0	59.9	61.3
(금융태도)	57.7	60.6	62.0	62.8	63.2	61.3	65.6

주 : 국내는 2018년 기준, OECD는 '15년 기준 16개 회원국 평균
자료 : 금융감독원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2019.1.29

美 반도체 지원책과 글로벌 기업 투자

신 석 영 연구원(seokyoung.shin@hanafn.com)

자국의 취약한 반도체 생산 여건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을 배경으로 美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 당국이 총 500억달러를 상회하는 대규모 반도체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면 TSMC와 삼성전자 등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2030년 경에는 미국이 세계 반도체 시설을 다수 유치하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 미국의 취약한 반도체 생산 환경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¹⁾

- 미국의 반도체 기업 경쟁력은 탁월하지만 자국 생산 여건은 상대적으로 취약
 - '19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은 매출 기준 47%의 비중을 차지(한국19%)
 - 반면 반도체 생산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12.5%에 불과(아시아 79%)
- 미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아시아 국가와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두 자리가 흔들리고 있음
 - SIA에 따르면 '10년 미국은 주요 경쟁국(한국·대만)과 2년 정도의 기술우위를 지녔던 반면 '19년에는 기술 격차가 사라짐
 - 중국은 '25년 자급률 70% 달성 및 세계 반도체 시장 선도를 목표로 반도체 굴기를 추진 중('19년 기준 중국은 2,430억달러를 투자하여 50개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

■ 위기감 속에서 미국은 반도체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


- 미국 의회는 2020년 6월 10일 500억달러를 상회하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초당적 관점에서 신속히 발의
 - 보조금 지급: 인텔 등 자국 반도체 기업에게 개발 보조금 지급(총 250억\$)
 - CHIPS: 미국에 반도체 시설을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총 100억\$)
 - 파운드리 법안: 반도체 생산 및 R&D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총 200억\$)
- 차기 대통령 당선인인 바이든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
 - 바이든은 코로나궐 충격을 계기로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공개적으로 강조

[1] "2020 State of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SIA, 20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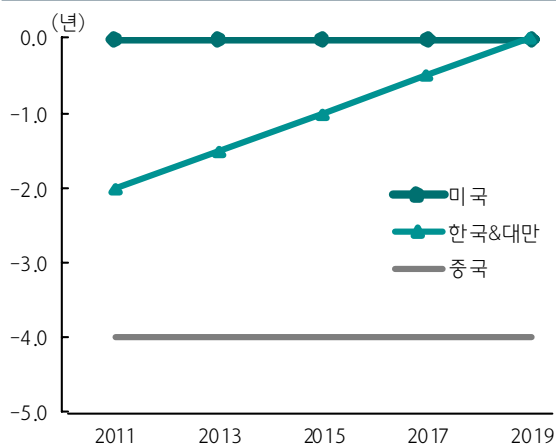
■ 대규모 지원정책 시행 시, 미국은 중국에 이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떠오를 전망

- 미국 정부가 연 50억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지원 한다면 미국은 2030년 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음^[2]
 - 연 50억\$ 지원 시: 글로벌 신규 반도체 공장의 41%를 미국에 유치하게 되어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반도체 생산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
 - 정부 지원책은 미국이 전세계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데 큰 걸림돌이었던 ‘고임금’과 ‘정부 지원 미흡’을 극복하는데 주효
-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는 파운드리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세계 팹리스(반도체 설계)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팹리스 최강국이며 팹리스와 파운드리(위탁생산)의 분업구조가 최근 빠르게 정착되고 있음
 - 인텔(Intel)은 7나노급 반도체 생산에 실패하여 해당 생산을 파운드리에 위탁 예정

■ 미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 정책이 현실화 된다면,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신규 투자도 보다 가속화될 전망

- 삼성전자의 경쟁사이자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는 '20년 5월 미국 애리조나에 5나노급 최첨단 생산 시설 투자 계획을 밝힘(120억\$ 규모)
- 세계 파운드리 2위 업체 삼성전자 역시 TSMC 독주를 막고 고객 확보를 위해 미국 내 파운드리 신규 투자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3]
 - 미국에는 퀄컴, 엔비디아 등 파운드리 기업의 핵심 수요가 밀집해 있음
 - 애플, 구글이 반도체 직접 설계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해외 파운드리 기업의 미국 투자와 미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미국과 경쟁국 간 기술 격차



자료 : SIA

■ 지원정책에 따른 미국 반도체 생산 경쟁력 변화

경쟁력 지표 (신규 공장 유치)	현재 ('10~'20)	2020-2030 전망 (중국 제외시)		
		현상 유지시	연 20십억\$ 지원시	연 50십억\$ 지원시
미국의 유치 비중 (%)	10% (12%)	6% (12%)	14% (24%)	24% (41%)
미국의 유치 순위 (등)	5등 (4등)	5등 (4등)	3등 (2등)	2등 (1등)
미국의 유치 건수 (개)	9개	9개	14개	19개

자료 : BCG

[2] "Government Incentives and US Competitiveness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BCG, 2020.09

[3] "삼성·LG전자 미국 공장 증설부담 커진다", 매일경제신문, 2020.11.10

금리: 높아진 상하단에서 숨고르기

김 수 정 수석연구원(sjkim1771@hanafn.com)

백신 개발 진전과 미국 경기 부양책 논의 재개 속에 대외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졌으며 국내는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추가로 확대되었다. 연말 기관들의 북클로징으로 거래량이 크지 않은 가운데, 미국 부양책과 위험자산 선호 지속, 채권시장 수급 부담 등으로 추가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도 높다. 그러나 12월 FOMC와 ECB를 앞둔 관망세, 금리 레벨 부담, 코로나 확산세 심화 등으로 금리 상승흐름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금리는 상승흐름을 이어갔으나 코로나 확산세 심화와 정책 기대로 상단은 제한

- 코로나19 재확산과 경제 봉쇄 조치 영향으로 미국 주간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2주 연속 증가하고 11월 ADP 민간고용도 예상치를 하회하며 경기회복세 약화
- FOMC 의사록에서는 보유자산 만기를 늘리는 것이 추가적인 완화정책 혹은 자산매입 축소시 완화적 여건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
- 바이든 정부의 재정책대에도 불구하고 차기 재무부 장관에 옐런 전 연준의장이 지명됨에 따라 통화정책과의 원활한 조합으로 금리 급등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
- 美 국채 금리는 부양책 논의와 백신 뉴스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코로나 확산세 심화,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상단은 제한(10년물 11.20일 0.83%→12.3일 0.91%)


■ 한은 경제전망 상향 조정과 대외금리 상승 등으로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

- 한은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의 경기회복세 관측 속에 올해 성장률을 기존 -1.3%에서 -1.1%로 상향 조정하고 2021년은 3.0%의 성장을 전망
- 한은 총재는 실물 충격이 완화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는 가파른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나 경제의 정상 궤도 복귀까지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
- 통안채 금리는 외국인 순매수 감소와 국고채 바이백 확대, 국고 2년물 발행을 앞둔 상황에서 통안채 수요 구축 우려 등이 맞물려 국고채 대비 상승폭 확대
 - 통안1년/국고1년 금리(%): 11.19일 0.68/0.70 → 11.26일 0.74/0.71
- 국고 금리는 금통위에서 경기 전망 상향 조정, 외국인 선물 매도, 대외금리 상승으로 10년물 중심으로 상승(국고3/10년(%): 11.20일 0.96/1.61→12.3일 0.98/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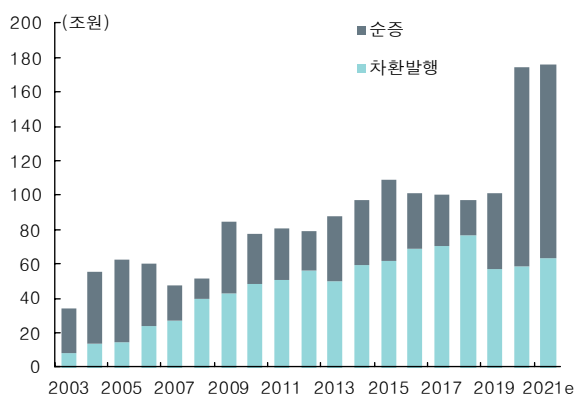
■ '21년 국채 발행이 올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계획된 가운데, 채권 매수세는 약화 예상

- 국회의 예산안 통과로 내년 국고채 발행은 정부안 대비 3.5조원 증가한 176.4조원으로 계획, 이는 올해 4차 추경을 반영한 국채 발행(174.5조원)을 상회하는 수준
-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2019년 대비 국채 발행이 75%가량 증가했으나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자금 유입, 국내 기관들의 유동성 확대로 원활히 소화
 - 외국인 원화채 잔고(조원): '18년말 98.6 → '19년말 123.8 → '20.11월 150.2
- 다만 최근 재정거래유인 축소로 외국인 단기채 순매수가 급감한 가운데, 대외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매력 감소, 중국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자금 유입 둔화 불가피
- 나아가 보험사의 경우 해외채권 투자 여건 악화로 올해 원화채 매수를 확대했으나 내년에는 해외투자 재개, 자산 성장세 둔화로 채권 매수가 약화될 소지
- 또한 금리 상승 환경에서 기관들의 소극적인 채권 매수, MMF 자금 유입 둔화에 따른 투신 채권 매수 감소 등으로 2021년 수급환경은 비우호적일 것으로 예상
 - MMF 잔고는 코로나 불확실성 완화시 기관의 자금집행 재개로 감소 가능성 존재

■ 주요 중앙은행의 완화적 스탠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제한적 범위내 금리 등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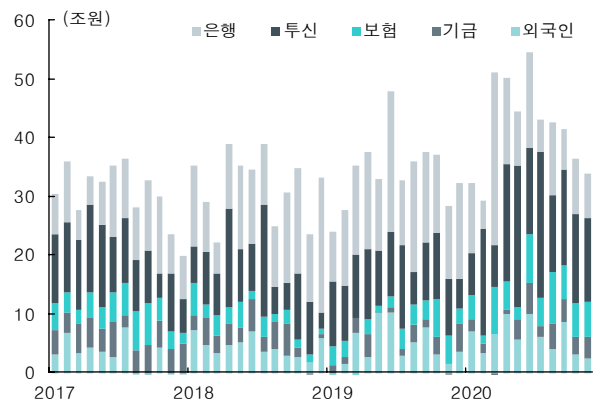
- 12월 ECB 회의(10일)에서는 자산매입프로그램 확대 등의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FOMC(15~16일)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 정책 확인 필요성과 백신 개발 진전 등으로 새로운 정책 발표는 없겠지만 완화적 스탠스가 강조될 전망
- 채권시장 수급 부담, 백신 개발 진전 등의 금리 상승압력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기대와 코로나 확산세, 금리 레벨 부담 등으로 좁아진 범위에서 금리 등락 예상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0.88%~1.00%, 1.58%~1.72% 범위로 전망 

■ 국고채 발행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 기관들의 원화채 순매수



자료 : 연합인포맥스

외환: 완전한 위험선호 속 1,100원 하회

윤 지 선 연구원(jisun.yun@hanafn.com)

주요국 코로나 확산세 심화에도 불구하고 美 추가부양책 및 백신 개발 진전 소식으로 완전한 글로벌 위험자산 랠리가 나타났다.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가 대거 유입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 원/달러 환율은 1,080원대 후반으로 급락하였다. 반면 중국 증시와 위안화는 국유기업 회사채 부도 소식, 미중 분쟁 심화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랠리에 편승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분간 원/달러 환율 하락 우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속도 부담 및 증시과열에 대한 경계로 추가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 글로벌 위험자산 랠리 및 약달러 기조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은 1,100원 하회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위험자산 랠리 속에 원화 강세 기대로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가 크게 나타나면서 1,080원대 후반까지 하락(2년 6개월래 최저치)
- 당국 경계 및 위안화 하락세 일단락, 국내 코로나 확산세 심화에도 불구하고 추가 선박 수주 소식(삼성중공업 2.8조억원) 역시 원화 강세에 우호적으로 작용
- 한편 11.26일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을 통해 양호한 성장률(21년 +3.0%) 전망을 내놓았으며, 경상수지는 유가 상승(상품수지 흑자 축소) 및 여행수요 증가(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20년 \$650억 → '21년 \$600억)


■ 백신 개발 기대 및 美추가부양책 기대로 달러화 약세 지속

- 달러화는 백신 개발 기대, 정권 이양 혼선 우려 완화, 차기 재무장관으로 옐런(Janet Yellen, 前연준의장) 지명,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며 달러인덱스 기준으로 2년 반래 최저치인 90pt대로 하락
 - 노동 경제학자 출신의 옐런 의장은 대규모 재정 정책과 저금리를 선호하며, 향후 美 경제침체 해결을 위한 연준과 정부의 원만한 협력이 기대됨
- 유로화는 독일 봉쇄조치 연장, EU공동 예산안 통과 불투명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위험선호 랠리 및 약달러 기조 속에 달러당 1.20유로대를 돌파
- 위안화는 약달러에도 불구하고 기업 결제수요 증가, 중국 채권 디폴트 우려, 바이든의 미중 발언으로 달러당 6.55위안 부근에서 횡보
 - 12.2일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즉각 폐기하지 않을 것이며, 관세 역시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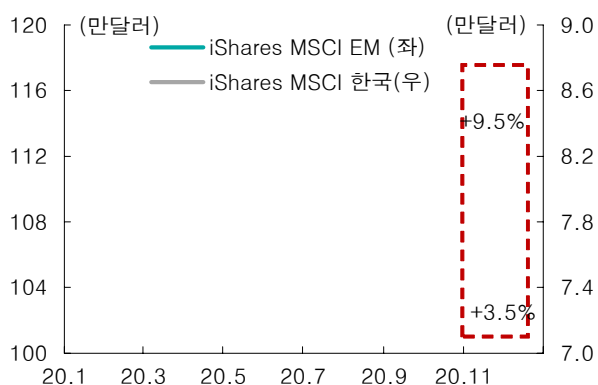
■ 중국 금융시장 개방 과정에서 위안화와 원화의 연동성이 약화될 가능성에 주목

- 올해 9월 중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를 이탈하며 가파른 하락을 보였던 주요 동인은 같은 EM-Asia 통화로 분류되는 위안화 강세가 자리
 - 원화는 위안화 Proxy 통화인 동시에, 양호한 코로나 방역, 글로벌 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경기 회복, 바이든 수혜 통화 등 공통된 통화 강세 여건을 가짐
- 그러나 11월 중순 이후 위안화-원화 연동성이 약화되었는데 중국 회사채 디폴트 우려, 인민은행 위안화 강세 억제 움직임 등이 중국 고유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위안화 강세는 일단락을 보인 한편 원화는 강세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
- 2015년 중국 부채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상승하는 등 중국의 약재에 원화 역시 민감하게 반응. 그러나 최근 중국 부채 리스크는 중국 채권 시장의 '시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고의적 과정으로 해석되며 불확실성 제한
 - 인민은행의 신중한 통화완화 기조(점적관수:필요한 곳에만 돈을 공급)를 고려해 보면 향후 추가적인 디폴트 발생이 가능하나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판단
- 최근의 중국 회사채 디폴트는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시장 개방에 따른 외자유입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의 경쟁관계가 강해지면서(대체효과 강화) 원화와 위안화 연동성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

■ 대내외 원화 강세 우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속도 조절을 보이며 1,090원대에서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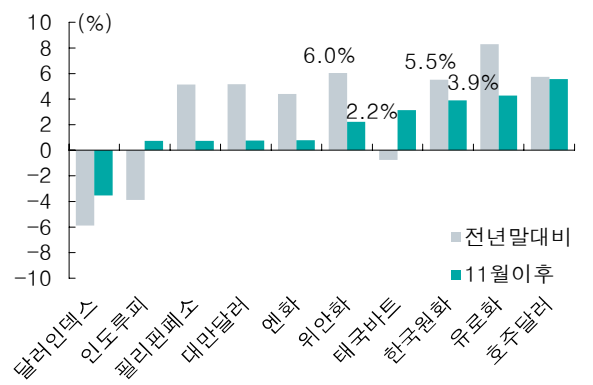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최근 급락에 따른 속도 부담 및 당국 개입 가능성, 증시 과열에 대한 경계로 1,090원을 중심으로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차주 ECB 통화정책 회의, 美 Pfizer 백신 긴급승인 여부 발표에 따라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며 원/달러 환율 1,080원 하회를 시도할 가능성도 경계 

■ MSCI 신흥국 지수와 한국 지수의 자금 유입



자료 : Bloomberg

■ 주요국 및 아시아 국가 통화 흐름 비교



자료 : Bloomberg

부동산: 전세 및 매매가격 동반 상승

황 규 완 연구위원(gwhwang@hanafn.com)

11월 들어 전세가격 뿐만 아니라 매매가격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상승폭 확대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 규제가 집중된 규제지역 역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 정부의 정책효과가 급격히 효력을 잃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새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계획된 임대주택의 수가 지나치게 적고, 임대매물의 확대는 구조적으로 어려워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 11월 들어 전세가격 뿐만 아니라 매매가격도 상승폭이 확대

-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승 추세가 다소 완화되던 매매가격도 11월 들어서는 상승률이 다시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재개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0.42('20.9월) → 0.32('20.10월) → 0.54('20.11월)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 0.52('20.9월) → 0.47('20.10월) → 0.66('20.11월)
- 임차 거주자의 주택구입 외에도 지방권을 중심으로 겹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지인 및 법인 등의 매수세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규제지역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월대비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등 정부의 정책 효과가 급격히 효력을 잃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72개 시군구 중 51개 지역에서 전월대비 가격이 상승


■ 정부, 경기 김포와 부산 해운대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 정부는 지난 11.19일 경기 김포시 일부지역, 부산 해운대구 외 4개구, 대구 수성구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신규 지정
-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점 외에 외지인의 구입 비율이 늘었거나 법인의 매수비율이 증가하는 등의 특징을 보였음
 - 단, 김포시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외지인이 떠밀려 주택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음
- 다만, 매매가 불안의 원인인 임대료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어 이들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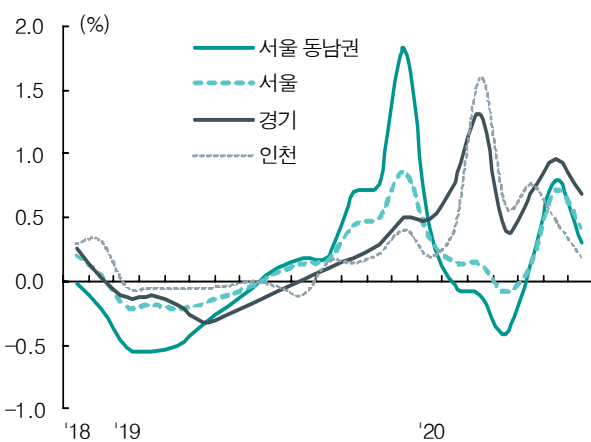
■ 또한,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전국에 11만여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발표

- 한편, 정부는 하반기 이후 지속되는 임대료 상승에 대응해 20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
-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만호의 주택이 내년 상반기 중에 공급되며 현재 공실 중인 공공 임대 주택(3.9만호)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공급
 -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규정된 지침을 개정해 공급대상을 확대할 예정
- 다만,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 특히 서울은 공급물량의 대부분이 '21년 하반기 이후에 몰려 있어 이번 정책으로 전세가격이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수도권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량(7.14만호) 중 35%인 2.42만호가 '21년 상반기에 집중된 반면 서울은 25%인 0.89만호에 그칠 계획

■ 다만, 공급되는 물량이 지나치게 적어 전세 및 매매가격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

- 정부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나 통상 거래되는 전월세 거래량에 비하면 지나치게 적어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19.11~'20.10까지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15.3만건이며 수도권은 145.5만건
 - 즉시 공급 가능한 공실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 1.5만호, 서울 5천여호에 불과
- 정부의 투자수요 규제 강화, 주임법 개정에 따른 이중가격 시장 형성 등 임대매물 공급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
- 결국 전세난에 지친 임차인들이 주택매매로 전환되면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주 : 서울 동남권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자료 : 한국감정원

■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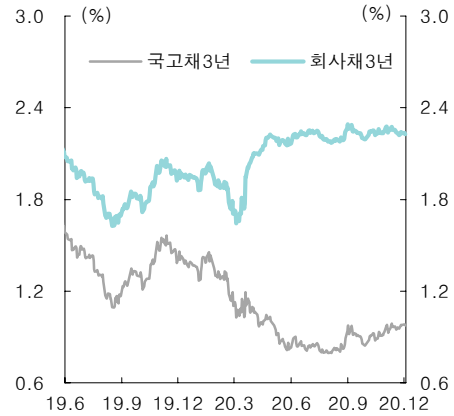
구 분	9억원 미만	9~15억원	15억원 이상
공동주택	10년 1,317만호 (95.2%)	7년 43.7만호 (3.2%)	5년 22.6만호 (1.6%)
단독(표준)주택	15년 20.7만호 (94.1%)	10년 0.9만호 (4.0%)	7년 0.4만호 (1.9%)
토지(표준지)	8년 / 50만 필지		

주 : 9억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표준)주택은 '21년~'23년 동안 균형성 제고기간을 거친 후 현실화율 제고
 자료 : 국토교통부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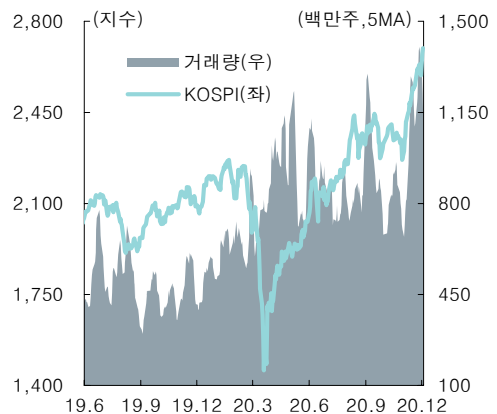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8년말	1.82	1.93	1.95	2.29	1.82	1.88
'19년말	1.39	1.53	1.49	1.94	1.36	1.48
10월말	0.52	0.63	0.85	2.25	0.94	1.24
11월 27일	0.52	0.66	0.87	2.23	0.98	1.32
11월 30일	0.60	0.66	0.88	2.24	0.98	1.34
12월 01일	0.51	0.66	0.88	2.23	0.98	1.34
12월 02일	0.48	0.66	0.88	2.23	0.98	1.35
12월 03일	0.48	0.66	0.88	2.23	0.98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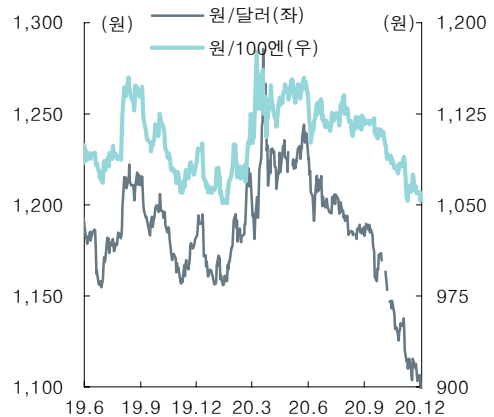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8년말	2,041.0	41,207	353	2,026
'19년말	2,197.7	41,136	416	-3,404
10월말	2,267.2	117,821	796	-9,825
11월 27일	2,633.5	126,417	1,196	797
11월 30일	2,591.3	212,318	1,312	-24,378
12월 01일	2,634.3	159,473	1,151	748
12월 02일	2,675.9	175,067	1,076	5,181
12월 03일	2,696.2	156,051	817	2,103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8년말	1,115.9	1,012.4	162.3	1,276.6
'19년말	1,156.4	1,064.2	166.0	1,297.1
10월말	1,135.1	1,084.3	169.4	1,321.9
11월 27일	1,103.2	1,060.1	167.7	1,319.5
11월 30일	1,106.5	1,059.6	168.1	1,319.7
12월 01일	1,106.2	1,060.6	168.3	1,335.3
12월 02일	1,100.8	1,053.3	167.7	1,332.2
12월 03일	1,097.0	1,056.0	167.6	1,3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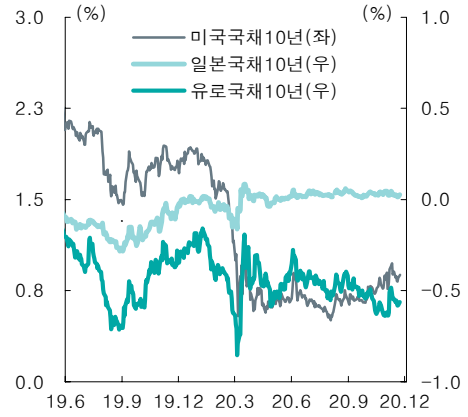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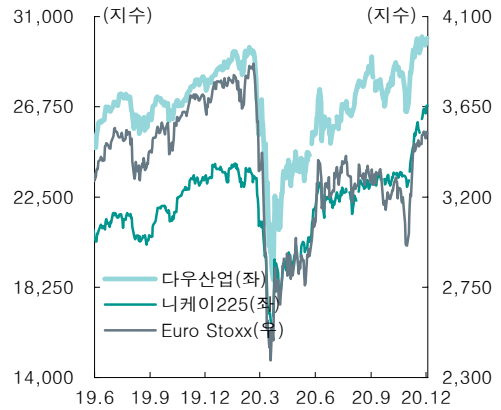
●●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18년말	2.40	2.808	2.49	2.68	0.00	0.24
'19년말	1.55	1.91	1.57	1.92	-0.01	-0.19
10월말	0.09	0.22	0.15	0.87	0.04	-0.63
11월 27일	0.08	0.23	0.15	0.84	0.03	-0.59
11월 30일	0.08	0.23	0.15	0.84	0.03	-0.57
12월 01일	0.09	0.23	0.17	0.93	0.02	-0.53
12월 02일	0.09	0.23	0.16	0.94	0.03	-0.52
12월 03일	0.09	0.23	0.15	0.91	0.03	-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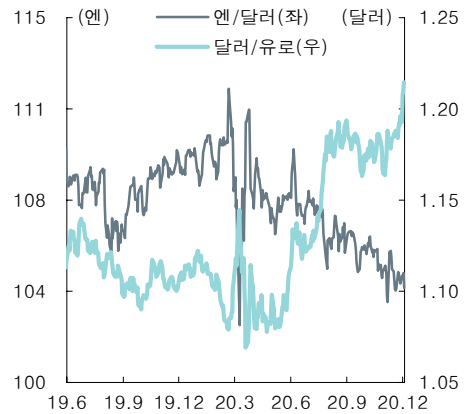
●●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8년말	23,327.5	20,014.8	2,493.9	3,001.4
'19년말	28,538.4	23,656.6	3,050.1	3,745.2
10월말	26,501.6	22,977.1	3,224.5	2,958.2
11월 27일	29,910.4	26,644.7	3,408.3	3,527.8
11월 30일	29,638.6	26,433.6	3,391.8	3,492.5
12월 01일	29,823.9	26,787.5	3,451.9	3,525.2
12월 02일	29,883.8	26,801.0	3,449.4	3,521.3
12월 03일	29,969.5	26,809.4	3,442.1	3,517.1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8년말	109.61	1.146	52.9	1,281.3
'19년말	108.66	1.122	67.3	1,523.1
10월말	104.60	1.165	37.2	1,879.9
11월 27일	104.07	1.196	47.1	1,788.1
11월 30일	104.39	1.193	47.0	1,780.9
12월 01일	104.30	1.207	47.6	1,818.9
12월 02일	104.50	1.210	47.1	1,830.2
12월 03일	103.89	1.214	48.1	1,841.1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25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0년 12월 5일 인쇄

2020년 12월 7일 발행

발행인 지성규

편집인 곽영훈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25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